

현안과 과제

| 對中 투자 20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對中 직접투자의 특징과 과제

□ 對中 투자 20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 對中 투자 현황

지난 1992년 8월 24일 한 중 수교 이후로 20년 동안 양국 간 활발한 경제교류가 진행돼 오면서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투자 금액은 2011년 현재 1990년보다 약 220배 급증했으며, 업체수도 3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국가별 진출 업체수 비중은 중국이 42.3%로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 6대 특징

1990년부터 2011년까지 對中투자 내용의 변천과정을 지역별, 업종별, 목적별, 기업 규모, 투자 성과, 투자 여건 등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東北중심에서 東南지역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산둥, 천진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지역을 선호했으나, 2000년대 들어 산업 및 노동 인프라 환경이 양호한 강소,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의 진출 및 투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제조업 투자보다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서비스업 중에서는 전문과학 기술, 금융 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생산기지에서 현지시장진출로 對中 투자 목적이 바뀌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저임 및 수출촉진을 위한 생산기지 목적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넷째, 대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대기업 투자 금액이 중소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종의 대기업 투자 규모가 1990년대보다 각각 7배, 23배 급증했다. **다섯째, 경영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7년간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경영수익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국내 수출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감소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임금 상승, 세금 혜택 축소, 노동쟁의 증가 등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외투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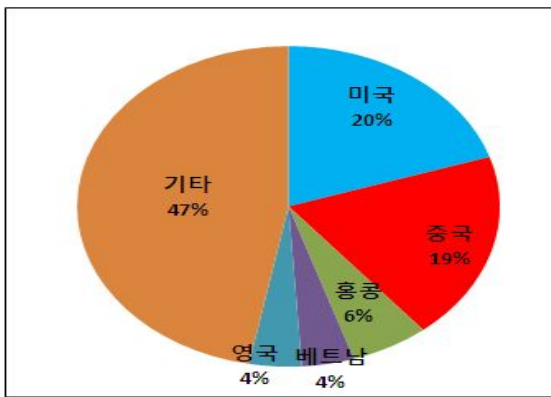
최근 중국경제가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고, 기업 규제가 강화 되는 등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중국 내수 시장 확대를 겨냥해 지역적, 업종별 對中 투자 패턴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IT 및 친환경 관련 신성장산업 유치항목 선점 전략 점검도 필요하다.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하이테크 및 친환경 분야 육성 가속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내 국내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수출품목 거래 개선 및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노동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세법, 보험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관련 제도 변화는 외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투자환경 악화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저임금의 양질의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적극 활용이 요망된다.

1. 對中 투자 현황

○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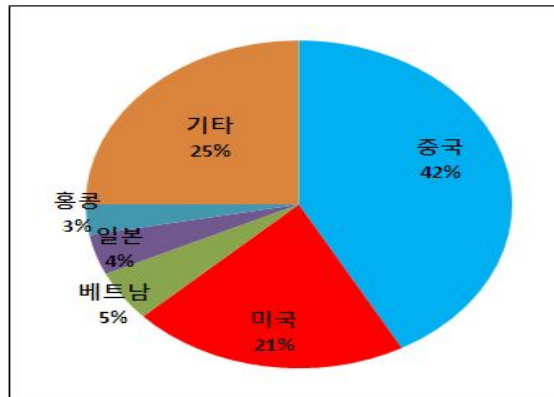
- 중국은 그동안 누적기준으로 국내기업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 2012년 6월까지 국가별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비중은 미국 20%, 중국 19%로 미국이 중국보다 다소 우위
 - 하지만 업체수(신규법인 기준) 비중은 중국 42%, 미국 21%로 중국이 미국의 약 2배

< 한국의 對국별 직접투자비중금액 기준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2012.6월까지 누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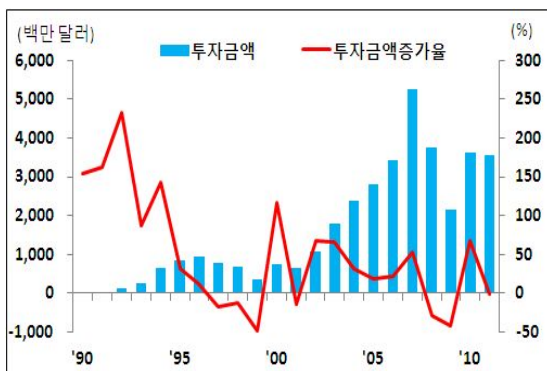
< 한국의 對국별 직접투자비중업체수 기준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2012.6월까지 누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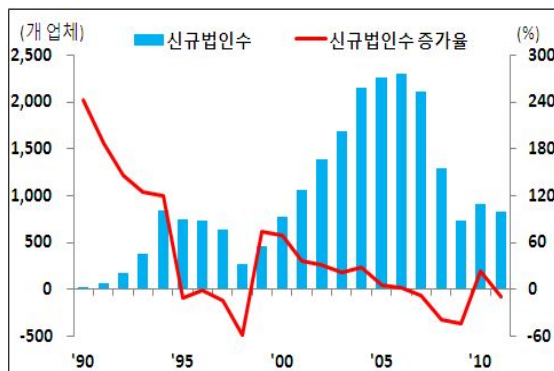
- 국내기업의 對中 직접투자는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 투자금액은 2011년 약 36억 달러로 1990년에 비해 약 220배 급증했으며, 신규 투자 법인수도 1990년 24개 업체에 비해 2011년에는 약 34배 증가한 827개 업체로 급증
 -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 증가율은 경제위기로 크게 둔화된 1997년, 2008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함

< 금액 기준,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업체수 기준,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 6대 특징

- 본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별, 업종별, 목적별, 규모별로 분류 및 가공함
 - 자료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에서 제공하는 對中 진출 및 투자 데이터
 - 분석 기간 : 분석 목적에 따라 '전체기간(1990~2011년)', '1990년대(1990~1999년)', '2000년대(2000~2011년)'로 구분
 - 분석 대상 : 對中 진출 업체수(신규법인수)와 투자 규모(투자 금액)
 - 지역 분류 : 분석대상은 중국내 총 26개 지역(22개성, 3개의 직할시, 1개의 자치구)
 - 성(22) : 감숙성, 강서성, 강소성, 광둥성, 귀주성, 길림성, 복건성, 사천성, 산둥성, 산서성, 섬서성, 안휘성, 요녕성, 운남성, 절강성, 청해성, 하남성, 하북성, 해남성, 호남성, 호북성, 흑룡강성 등 22개 지역
 - 직할시(3) 및 자치구(1) :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등 3개 지역과 자치구(신장, 티베트, 닝샤후이, 광시, 내몽고 등 5개 자치구의 합)로 구성
 - 업종 분류 : 제조업을 포함해 총 19개 업종으로 분류
 - 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¹⁾ 그리고 기타업종²⁾ 등 총 19개로 분류
 - 목적별 분류 : 생산기지, 현지시장진출 등 목적으로 분류
 - 분석대상 : 생산기지(수출촉진, 저임활용), 현지시장진출 등 2가지
 - 기타목적 : 보호무역타개, 선진기술도입, 원자재확보, 자원개발, 제3,4,5국 진출, 기타 등 8가지로 분류
 - 규모별 분류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비영리단체) 중 분석대상을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
 - 경영성과 분류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개하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자료 참조

1) 교육, 금융·보험,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 사회시설관리·지원,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전문과학·기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및 기타 서비스 등 12개 업종.

2) 기타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건설, 광업, 농·임·어업 등 6개 업종.

① 지역 : 東北중심에서 東南지역으로 진출 확대

○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지역별로 1990년대 산둥, 천진, 요녕, 길림 등 동북지역 집중에서 2000년대 강소, 상해 등 동남지역으로 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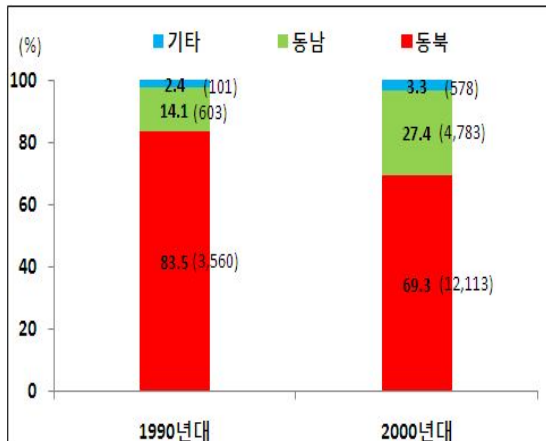
- 국내기업의 對中 진출은 1990년대 동북지역 중심에서 2000년대 동남지역으로 확산

- 산둥, 천진 등 동북지역 진출 업체수 비중은 1990년대 전체 투자기업의 84%에서 2000년대에는 69%로 감소. 투자 금액 비중도 67%에서 55%로 감소
- 반면 동남지역 진출 비중은 1990년대 전체 투자기업의 14%에서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27%로 급증
- 한편, 기타지역(중·서부지역) 진출 및 투자비중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에는 산둥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동북지역 진출이 많았으나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과 산업 및 노동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국내기업의 동남지역 진출이 확대

- 특히, 중국정부는 2001년 WTO 가입이후 동남지역에 대한 지역별 개방화 가속화 일환으로 시행된 외자 유인 정책에 기인

< 지역별 對中 진출 비중 >



< 시기별 對中 투자 집중 지역 범위 >



주 1. 업체수 비중.

2. 동북지역 : 산둥, 천진, 하북, 길림, 요녕, 흑룡강 등 5개 지역.
3. 동남지역 :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둥 등 5개 지역.
4. 기타지역 : 중·서부지역은 감숙, 강서, 귀주, 사천, 산서, 섬서, 안휘, 운남, 칭해, 하남, 호남, 호북 등 12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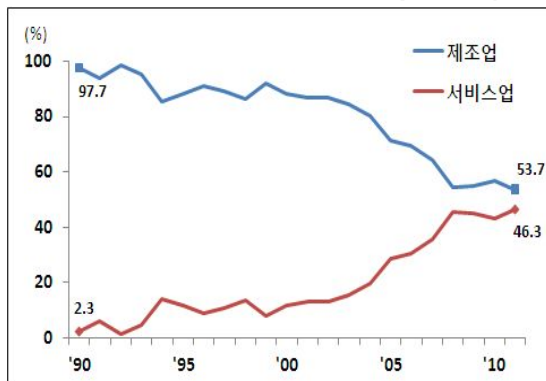
② 업종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 업종별로 對中 진출 및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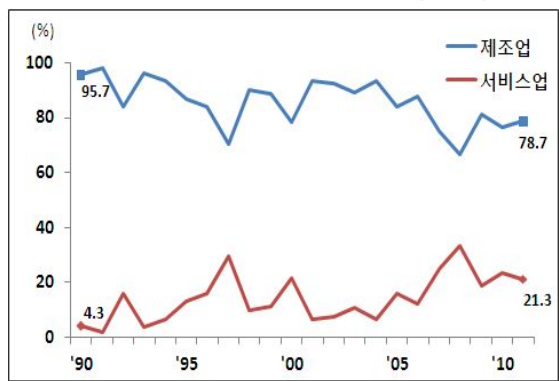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하며 제조업 비중과의 격차가 감소

- 업체수 기준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1990년에는 각각 98%, 2%에서 2011년에는 각각 54%, 46%로 두 업종의 격차가 크게 감소
- 금액 기준으로도 2007년 이후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격차가 점차 감소, 1990년 96%, 4%에서 2011년 79%, 21%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업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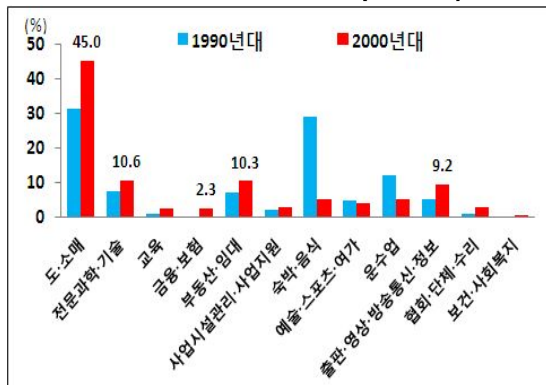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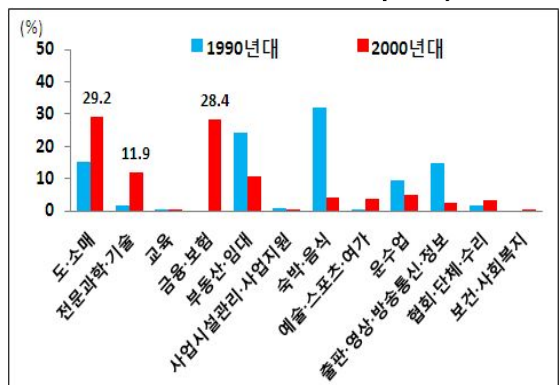
- 특히, 서비스업종 가운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면 도소매업, 전문·과학 기술, 금융보험 업종 투자가 급증

-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도·소매업의 업체수가 지속 증가, 투자 금액에서는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 비중이 급증

< 서비스업 진출 비중(업체수) >



< 서비스업 투자 비중(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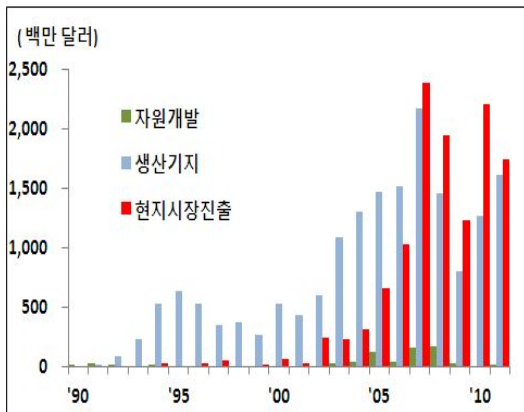


③ 투자 목적 : 생산기지에서 현지시장진출로 전환

○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 목적이 2007년부터 수출촉진과 저임금 활용을 위한 생산기지 목적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

- 2007년은 국내기업의 對中 투자가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변화되는 분기점
- 국내기업이 생산기지 활용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규모는 1990년 약 100만 달러에서 2007년 약 22억 달러로 투자 증가 지속
- 하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현지시장진출 목적 투자가 생산기지 목적 투자를 초과

< 목적별 對中투자 유형 변화 >



< 목적별 투자 비중 추이 >

구분	'90	'95	'00	'05	'10	'11
자원개발	86.0	1.4	0.5	4.4	0.3	0.6
생산기지	7.4	75.0	69.4	52.2	35.0	45.0
현지시장진출	0.0	1.0	8.2	23.2	61.0	48.8
기타	6.6	22.6	21.9	20.2	3.7	5.6

주 : 생산기지는 수출촉진과 저임금 활용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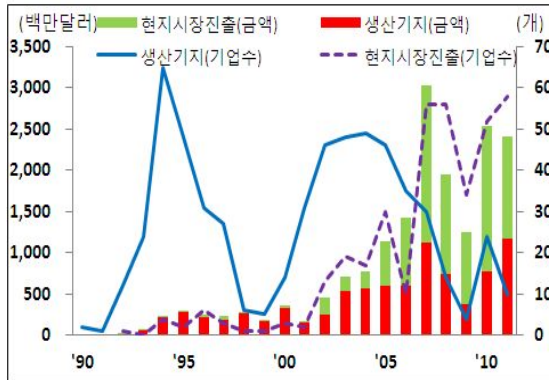
○ 목적별 기준³⁾으로 기업규모와 업종별 측면에서 볼 때도 對中 진출 목적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급증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對中 진출 목적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생산기지 목적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전환
- 대기업의 경우, 1990년 생산기지 목적과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진출한 업체수는 각각 2개, 0개였으나, 2007년에는 각각 30개, 56개로 현지시장진출 목적 진출이 많아짐. 투자 금액에서도 2006년에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8억 달러로 생산기지 목적 6억 달러를 최초로 추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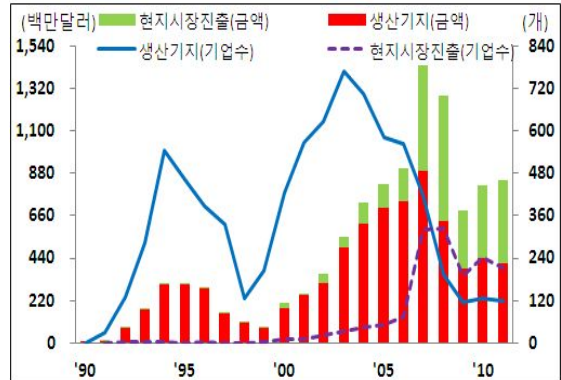
3) 목적별 기준은 생산기지와 현지시장진출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 단, 생산기지 목적은 수출 촉진과 저임금 활용의 합계임.

- 중소기업의 경우, 1990년 생산기지 목적과 현지시장진출 목적으로 진출한 업체수는 각각 1개, 0개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각각 192개, 325개로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급증, 투자 금액 면에서도 2008년부터 업체수와 비슷한 추이 지속

< 대기업 對中 진출 및 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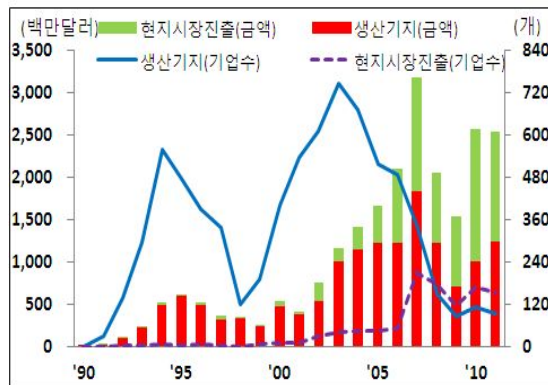


< 중소기업 對中 진출 및 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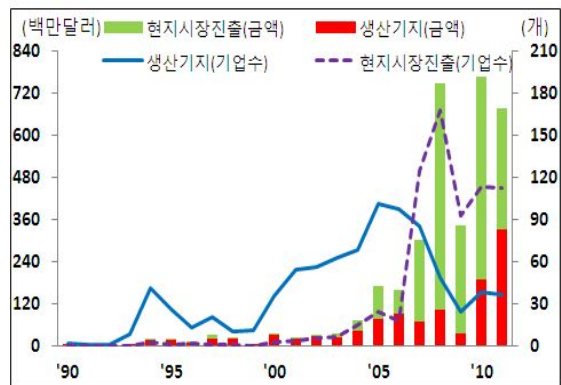


- 업종별⁴⁾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2000년대 중·후반부터 對中 진출 및 투자는 생산기지 목적보다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많아짐
- 제조업의 경우, 2011년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업체수와 투자 금액 면에서 각각 153개, 13억 달러로 생산기지 93개, 12억 달러를 초과
- 서비스업의 경우도 업체수와 투자금액 면에서 현지시장진출 목적이 생산기지 목적을 크게 상회

< 제조업의 對中 진출 및 투자 비중 >



< 서비스업 對中 진출 및 투자 비중 >



4) 업종별로는 제조업, 서비스업(교육, 금융·보험,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 사회시설관리·지원,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전문과학·기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및 기타 서비스)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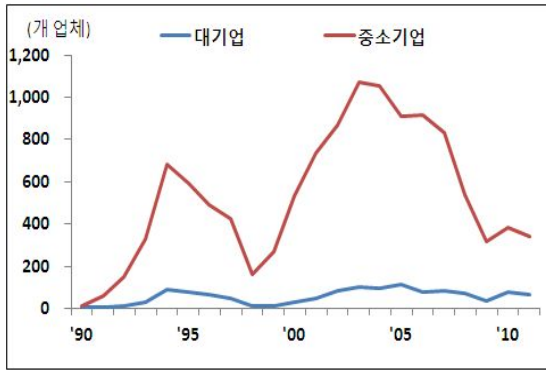
④ 기업 규모 : 대기업 투자 급증

○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했으나,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대기업의 對中 투자 규모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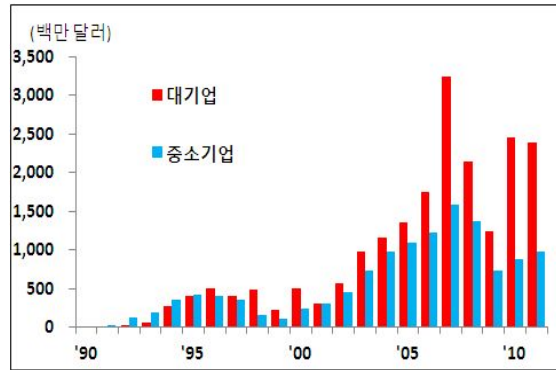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대기업의 對中 투자 규모 급증

- 1990년부터 2011년 동안 누적 업체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약 1만 2,000개 업체로 대기업 1,300개 업체에 비해 약 9배 진출
- 하지만, 1990년부터 2011년 동안 누적 투자 금액은 대기업이 205억 달러 중 중소기업 128억 달러에 비해 약 1.6배 투자
- 특히, 1996년부터 대기업 투자 금액이 중소기업을 추월 2007년부터는 약 2배로 투자 급증

< 규모별 對中 진출 업체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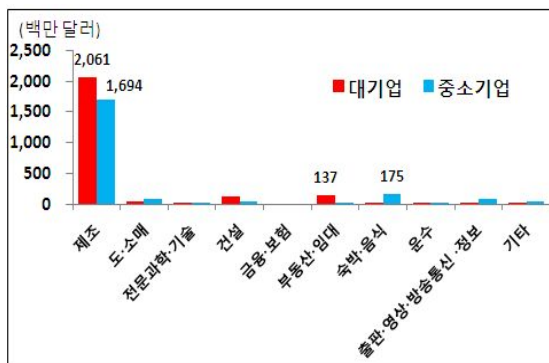
< 규모별 對中 투자 금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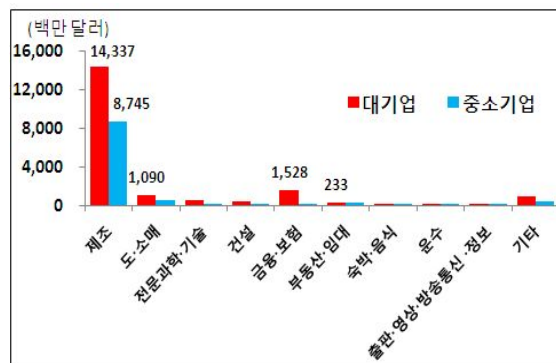
- 업종별 對中 투자 금액도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종의 대기업 투자가 급증

- 제조업, 도소매업 업종의 대기업 투자는 2000년대가 1990년대보다 각각 약 7배, 23배 증가하며, 중소기업 5배, 6배를 초과

< 업종별 對中 투자 규모(1990년대) >



< 업종별 對中 투자 규모(2000년대) >



⑤ 투자 성과 : 경영성과 개선 속 무역수지 개선효과 감소

○ 최근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수익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임

- 매출액 순이익률은 2004년 2.6%에서 2010년 3.9%로 최근 개선 추이 지속
- 또한, 국내기업의 對中 현지화 가속에 따른 특허권, 노하우 등 기술계약 체결 증가로 배당금, 로열티 수입 증가에 따라 투자수익도 2009년 이후 재차 반등

< 對中 투자 수익 현황* >

(단위 : 억 달러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매출액 순이익률*	2.6	1.3	2.3	2.7	1.5	2.8	3.2
매출액	293	390	518	621	820	959	1314
당기순이익	7.5	5.1	10.2	17.0	11.9	26.8	41.6
배당·로열티(A)	6.9	5.7	11.6	16.1	20.1	10.9	20.2
투자 잔액(B)	50.8	67.4	101.9	151.6	151.3	168.6	193.5
투자 수익(A/B)	13.6	8.5	11.4	10.6	13.3	6.5	10.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자료 재인용.

- 주 1. 투자 잔액은 수출입은행에 결산서를 제출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기준으로 총투자 금액이 아님.
- 2. 매출액 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은 기업의 최종 수익을 판단하는 비율.
- 3. 투자수익은 배당·로열티(유량)에 대한 투자 잔액(저량)의 비중을 나타내므로 결과의 한계 존재.

- 반면, 2009년부터 국내에서 중국 현지법인으로 수출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 현지법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개선 효과 감소

< 중국 현지 진출 국내기업과 국내기업과의 수출입 추이 >

(단위 : 억 달러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현지법인의 對韓 수입(A)	114.8	140.5	168.7	181.6	190.5	188.7	253.9
현지법인의 對韓 수출(B)	41.1	49.2	85.1	104.8	206.4	251.2	423.6
對中수출총액(C)	497.6	619.1	694.6	819.9	913.9	867.0	1168.4
對中수입총액(D)	295.8	386.5	485.6	630.3	769.3	542.5	715.7
對中수출비중(A/C*100)	23.1	22.7	24.3	22.1	20.8	21.8	21.7
對中수입비중(B/D*100)	13.9	12.7	17.5	16.6	26.8	46.3	59.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자료 재인용.

- 주 1. 상기 현지법인 수출입 자료는 수출입은행에 결산서를 제출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함.
- 2. 현지법인 對韓 수입액은 중국 진출 국내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현지법인 對韓 수출액은 중국 진출 국내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금액.
- 3. 한국의 對中 수출입 총액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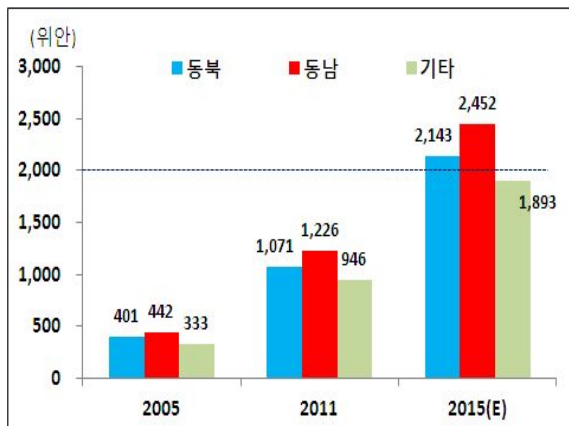
⑥ 투자 여건 : 투자 환경 악화

○ (인건비 상승)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 진출이 동북 및 동남지역의 최저임금 급상승 가능성 증대

- 2015년까지 동북 및 동남지역의 최저임금은 1인당 평균 약 2,000위안 초과 예상
 - 2005년에 비해 2011년 최저임금 수준은 동북, 동남, 기타(중·서부지역) 지역 모두 약 2.8배 증가
 - 중국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5년까지 동북 및 동남지역의 1인당 평균 최저임금은 약 2,000위안 초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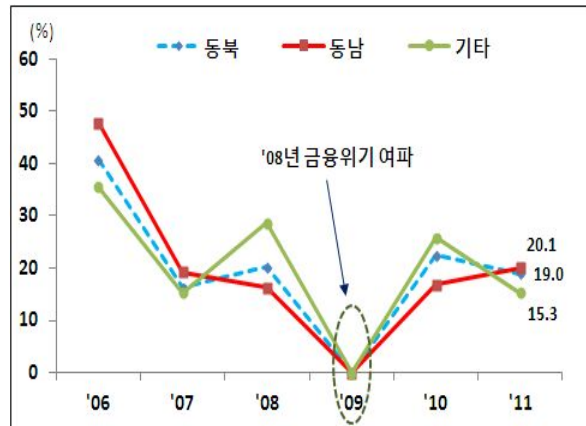
- 임금상승률은 저하되고 있으나, 여전히 10~20%대의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임금상승률이 잠시 보류된 이후 2010년 크게 증가
 - 2011년 현재, 평균 임금 상승률은 동북 19%, 기타 1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강소, 상해 등 동남지역은 20%로 전국 평균 18%를 상회

< 주요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 추이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1. 1인당 평균 최저임금 기준.
 2. 동북(7개 지역), 동남(5개 지역), 기타(중·서부지역)으로 구분.

<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 증가율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左同.

5)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11-'15) 동안 지역별 최저임금을 연평균 약 13% 인상하여 5년 내 현 수준보다 2배 이상 상승시킬 계획.

○ (세금 혜택 축소) 신규 세법에 따라 외국기업 및 외국인 취업자의 세금 부담 가중

-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와 보험료 등 세법 규제 강화

- 기업소득세는 2008년부터 내·외자 기업 간 차별적 세율적용 폐지. 하이테크, 중소기업, 서부진출기업(2011년 초~2020년 말까지 진출 기업)에게는 우대조치
- 개인소득세의 최저 납세 소득액이 상향으로 조정되며, 비교적 고소득층에 속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부담 증가
- 또한 중국내 취업 외국인에게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고용 외국기업 보험료 부담 가중

< 중국내 외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 적용 기준 >

구분	신규 시행 법규	세부 내용
기업소득세	○ 新기업소득법('08년부터 시행)	○ 세율 : 25%(내·외자 기업 동일) - 예외 : 하이테크 기업(15%), 중소기업(20%), 서부지역진출(15%)
개인소득세	○ 新과세표준('11.9월부터 시행)	○ 최저 납세 소득액 - 일반 : 3,500위안(이전 2,000위안) - 외국기업내 외국인 근로자 : 4,800위안
보험료	○ 사회보험법('11.7월부터 시행) - 중국내 취업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잠행방법('11.10 시행)	○ 중국내 취업 외국인 가입 보험 - 양로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자료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중국 세무총국.

○ (노동쟁의 급증)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노동쟁의 급증 초래

- 임금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쟁의 사례 급증으로 경영 환경 악화

- 2008년 新노동계약법, 2010년 임금조례(임금집단 협상제도), 2011년 사회보장법 등 노동관련법이 수정 및 개정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 고용자간 노사분쟁 증가

< 중국 노동쟁의 현황 >

(단위 : 만 건)

구분	'00	'02	'04	'06	'08	'10	'11
노동쟁의	13.5	18.4	22.6	31.7	69.3	68.4	58.9

자료 :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3. 시사점

- 향후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지역별, 업종별 對中 투자 패턴의 구조적 개선 필요
 - 지역별로는 동북 및 동남지역 투자 집중에서 최근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지역 개발을 겨냥한 지역투자 전략 개선 필요
 - 업종별로는 생산기지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 진출 전략 필요
-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최근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IT 및 친환경 관련 신 성장산업 유치항목 선점 전략 점검 필요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동안 하이테크 및 친환경 분야 투자를 통한 산업업 그레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전략 변화 필요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내 국내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수출품목 거래 개 선 및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가 향후 중국내 외국기업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 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최근 기업소득세(08년), 사회보험법(07년) 등 외자 기업에 대한 제도적 혜택 적용이 폐지 되었고, 신노동계약법(08년), 임금조례 등이 개정되면서 외자에 불리한 노동환경 조성
 - 지역적으로도 중국정부가 향후 5년(2011-2015년)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배 인 상할 계획이므로 향후 임금부담이 큰 동북 및 동남지역보다는 아직 임금수준이 낮은 중·서부지역 진출 모색 필요
- 투자환경 악화로 U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 향후 경영환경 악화로 국내로 U턴하는 중·저 기술형 위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임금·양질의 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적극 활용 요망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02-2072-6225, hzz72@hri.co.kr)